

플롯

1 4번째 퇴사일

사건:

자위행위 하는 남자

자위행위 후 후회, 오늘 회사에서의 마지막 인사 나눔 회상.

심리(or 무의식):

회사를 나간다는 들뜸,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

평소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을 나누는 아쉬움 속 자유로움을 성취한 것 같은 우월감.

->집으로 가는 길 왠지 마음을 놓을 것 같아 야동은 보지 말자는 다짐.

집으로 가고 저녁이 다가올수록 막상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짐과 동시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막연히 새로운 환경과 기대에 대한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를

반복 보상심리가 눈을 뜨고 막연한 낙관성과 자유로움이 잠식해가는 것을 앎과 아직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이니까라는 생각의 합리화의

싸움 속에 조금씩 마음을 음란의 늪으로 옮겨가며 몇번의 마우스 움직임과 키보드의 두들김으로 쾌락을 맛볼 수 있다는 습관화된 충동에

심장은 박동하며 반응하기 시작한다.

빨라진 박동에 맞추어 급해진 손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움직여 나체와 그 움직임을 모니터 속에 퍼트린다.

//(동공의 확장되고 망막에서 시신경을 통해 옮겨진 이미지는 곧바로 뇌로 옮겨져 이걸 에로라고 해석하며 즐거움을 되돌려준다.)

이미지들은 최근 퇴사를 준비하고 새로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단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보상받기 시작했다.

자극에서 자극으로 옮겨갈수록 좋은 에너지를 이어가자는 금욕적인 생각은 시들어버리고 더 새로운 자극으로 만족을 찾았다.

탐닉을 거듭하다 자극이 무뎌질 때쯤 민감해진 부위를 쓰다듬기 시작하고 더 큰 쾌감으로 보상을 극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이내 쑈그러든다. 흐르는 액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는 다 사라지고 뒷처리를 비롯해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조금씩 떠오른다.

2 친구 결혼식 (이전 결혼식 회상 포함)

사건:

오랜만에 하나하나씩 만나는 고향 친구들.
카메라 들고 결혼식을 찍는 주인공.
커플 친구들, 새로 만나는 제수(?)씨에게 인사보내기 부끄러움에 카메라를 찍는 역할로서
그 시간을 보내버리는..

직장을 나올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자부심과 우월감을 느끼는 주인공이 이 날은 왠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아. 애써 밝으려고 하지만 평소에 친구를 만날 때의 자신감이 나지 않은 상태.

입사를 하고 산 카메라 뒤에 숨어서 부끄러움을 숨김.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라는 말에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나

회상- 첫 회사를 나오고 창업아이템을 만들어 조금 지각.
식사자리에서 런칭시켰다고 친구들에게 말함. 축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시큰둥한 가운데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먼가 지고 있다는 느낌을 줌.

심리:

왠지모를 기운 빠짐에 어제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아쉬움과 자책, 친구들 앞에서 밝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

자주 보지 못하게 된 고향친구를 본다는 반가움을 항상 가지고 왔지만 오늘은 그 반가움이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하는 것에
눌려 있다.

결혼식에 도착을 하고 친구들을 보자 실제로 그 반가움보다 부끄러움이 들고 내 처지를 생각하게 된다.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나 자신은 그게 잠시

머무르는 우울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비교로서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와 아내와 같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당당해보여서 홀로인 나는 그리고 어제 퇴사한 나는 어색하고 부끄러움으로 수축하고 있었다.

회상 - 뿌듯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실망감,
회상이 끝나고 - 그 때의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된다.

0 마지막 도전
사건:

심경을 다스리고 스스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찾음.
얼마전부터 생긴 몸에 이상을 체크하기 위해 가는 병원길
아이디어 떠오름.
검사 받고 결과 들음.
아이디어 식어있음.

심리:
몇일이 지나 차분해지고 백수가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 나에게 자부심을 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함.
병원 가는 중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여겨지는 것이 머릿 속에 떠오르고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며
그 아이디어에 스스로 감탄하면서도 이전에도 같은 경험을 했기에 설레발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면서도 든든하고 뭔가 운명적으로 이 아이디어 내게 다가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

0 도전과 실패
5개월간의 도전. 허무하게 접어야 하는
할아버지의 죽음.

0 새로운 면접

면접에서 회사를 낮게 보고 그냥 면접은 본다는 태도, 어린 면접 질문자들.
거의 넘어온 면접관들, 연봉을 높게 부름, 곤란한 표정의 면접관들.
마지막 알고리즘 문제 A4용지에 보여주고 자유롭게 생각을 말해달라고 함.
분명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자신감
부리며
경력을 얘기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지고 있는 상황.
~ 이 정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면접관의 표정.
어색하게 헤어지는 면접관, 면접자.

돌아오는 길.

0 막다른 길

면접 볼 때는 그냥 소박하게 붙었으면 하는 바람.
지원한 회사 면접이 다 떨어지고 가고 싶은 회사 면접을 준비하는 중 포기.

무엇을 집중해야 할 지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 대학교 시절부터 배워온 전공을
놓지는 못함.

첫 시작을 회상하며 지금이 막다른 길임을 인지하기 시작함.
여태껏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인지 흔들림.

이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자신의 마음 속에 진짜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무시했던 것을 곱씹어
봄. (미래에 추구했던 것이 현재에 어떻게 변질 되어있고, 그 변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는 상황에 맞추려는 나로 인해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

0 새로운 길

미래의 어떠한 상황을 두지 않으려고 함, 불안과 걱정을 없애버리려고 함.

햇살 비친 길거리에 가로수를 만끽하며 걷는 주인공.

